

해양수산부, 천일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 모색

- 황종우 장관, 생산자·유통업계·지자체·전문가 등과 가격·노동인권 등 현안 계기, 생산·고용·유통구조 등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8월 14일(금) 오송에서 천일염 산업 발전방안에 대해 생산자단체, 유통업계, 농·수협, 지방자치단체, 학계·전문가 등과 함께 ‘천일염 산업 발전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천일염 산지가격 하락과 노동인권 문제 등을 계기로, 천일염 생산·가격 동향과 산업 여건을 점검하고 중장기적인 천일염 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 생산·고용구조의 지속가능성과 개선방향 ▲고부가가치화와 안정적인 판로·수급관리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 ▲염전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품질·이력관리 체계 개선 등 천일염 산업 전반의 신뢰 회복과 경쟁력 강화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천일염 산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생산자가 안정적으로 경영하고, 근로자가 안심하고 일하며,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가격 안정, 노동인권 보장, 유통신뢰 확보 등에 대한 현장과 전문가의 소중한 의견을 천일염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수산정책국 유통정책과	책임자	과 장	문미희 (051-773-5440)
		담당자	사무관	이대섭 (051-773-5617)